

2014년 5월 1일<글쓰기>

<현장학습>

나는 현장학습에 갔었다.

가서 아빠가 이리와 보라고 했었다.

따라가 보니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삼촌이 있었다.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다.

가서 나무 분뜨기를 했었다.

7개나 해버렸다.

아빠는 손에 물집 잡히고 삼촌은 숨이 찼다.

나는 인대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근육이 손상되었다.

그래도 좋았다.

삽질하다가 사슴 애벌레와 지렁이를 발견했다.

깊은 연못 에서 올챙이도 잡았다.

지금은 올챙이가 밥풀을 먹고있다,

선생님 사랑해요